

디지털 격차와 삶의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세대별, 사회경제적지위, 도시-농촌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gital Divide and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Generation, SES, and an Urban-rural Comparison

고흥석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Heungseok Koh(heungseok.koh@gmail.com)

요약

이 연구는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발달과 한국사회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현상에 주목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대해 세대별, 도시-농촌간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규모의 9,647개 샘플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대별로 구분하였을 경우, 2030연령대가 디지털 활용과 삶의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디지털 활용은 모든 계층에 있어서 도시거주자들이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삶의 만족도는 하위계층과 중위 계층에서는 농촌지역이, 상위계층에서는 도시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초연결사회로 진행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디지털 형평의 문제를 사회경제적지위와 도시-농촌 간 비교를 통해 재확인하면서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중심어 : | 네트워크 사회 | 디지털 격차 | 디지털 형평성 | 삶의 만족도 | 도시-농촌 비교연구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the digital divide caused by personal SES(Socio-Economic Status) eventually affect personal life satisfaction. The study also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the differences among generations, with respect to the digital divide and personal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Korean Media Panel data produced by KISDI, this study used 9,647 national samples to obtain variables such as digital divide, and life satisfaction. Results show that personal SES is a key factor that significantly influences digital divide and life satisfaction in various degrees. Also, the study finds that the degree of the digital divide have an effect on people's life satisfaction. The findings imply that people living in urban areas are more highly used to digital media than those in rural areas regardless of their SES. The study has an implication, in terms of digital equity among generations as well as urban and rural residents.

■ keyword : | Digital Divide | Digital Equity | Life Satisfaction | An Urban-rural Comparison | Socio-economic Status |

I. 서론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 어떤 국가나 사회보다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해졌으며, 광범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보다 빠르고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개방되어 공유될 수 있고, 가상 세계에서 누구와도 쉽게 연결되어 소통할 수 있는 웹3.0 혹은 인터넷 3.0 세상에 사는 지금 우리는 과연 행복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하기 힘들다. 그 이유에는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이 있겠지만, 디지털 문명 자체가 반드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인터넷 보급의 확산과 모바일 소셜 플랫폼의 중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사회의 모습에서 개인 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소득과 교육 수준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 변인을 전제한다. 나아가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재하고 있는 도시-농촌 사이의 간극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1960년대 새로운 개혁과 사고, 실천의 문제를 개혁체택물의 차이를 통해 개혁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이론으로 설명한 이래 새로운 과학기술의 채택여부나 뉴미디어 수용 양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개혁확산이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왔다[1][2]. 특히 1970년대 들어서면서 티치너와 도너휴, 올리엔(Tichenor, Donohue, & Olien, 1970)은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습득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내면서 지식격차(knowledge-gap) 가설을 제시하였다[3]. 그리고 두 집단 간 지식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커진다고 보았다. 즉, 새로운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부(wealth)의 불평등한 분배와 더불어 미디어가 야기하는 정보 이용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지식격차 가설은 이른바 정보격차(information divide), 혹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환원되었고[4][5], 학자에 따라서는 “디지털 차별”(digital distinction)로 이해하기도 한다[6].

용어의 차이와 별개로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새로운 기술 채택(adoptio)에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지식격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지식격차는 결국 소득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5][6].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6][7].

미디어 이용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비롯하여 인터넷 이용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져 왔으며, 새로운 과학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도 언급되고 있다[6]. 물론, 사회적 불평등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현대의 새로운 기술문명의 시대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개인들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판단 기준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의 차이와 더불어 뉴미디어의 사용 여부 또한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다뤄져야 함을 보여준다[8].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사용의 폭(breadth)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상대적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7]. 이러한 뉴미디어에 대한 디지털 격차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며, 한국을 제외하고는 인터넷과 컴퓨터 보급률 자체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9]. 즉, 한국

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 격차의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치,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모바일 무선 통신기기를 통해 공공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는 급속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사람들 끼리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거나 혹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디지털 격차의 차원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10].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사회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간극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 디지털 격차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즉, 도시 농촌 간 비교 연구는 노인의 건강 상태나 복지수준[11][12]에 관한 연구나,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에 관련한 연구[13-15], 농촌지역 청소년 비행 문제나 교육 관련 연구[16][17], 지역개발이나 산업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의 비교연구[18] 등 일부 한정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과 달리 정보사회 측면이나 매스커뮤니케이션 기반의 도시 농촌 간 비교 연구는 미디어 이용행태 등에 대한 기술적인(descriptive) 조사연구보고서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소셜 미디어의 확산이 가져온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화두는 소셜 미디어가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삶의 질에 대한 탐색은 객관적 측면(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상태, 교육 및 건강상태, 노동과 문화 생활 수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19],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경험을 중시하는 경우[20],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 수준에서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 이용을 통한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논의되기도 하고[21][22],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등 특정 소셜 미디어이용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변화와 함께 이러한 대인 관계가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23].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낮은 자존감(self-esteem)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느끼는 사용자들에게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과 같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적 상황에서 전국 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사회자본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탐구를 시도한 바 있다[25]. 지역적 측면에서 한국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수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 관계망이 노인들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직접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26].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이 노인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존감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6]. 이와 함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세부 연구들 역시 도시-농촌 간 비교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 어촌지역 주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생활환경 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대한 연구, 부모-자녀 간 갈등과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과 같은 요소들이 도시-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있는 연구들도 있지만, 정보통신기술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나 미디어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농촌 간 비교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III. 연구문제

이 연구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다양한 사회경제적 관계 변화와 그러한 변화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동시에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따라 부수되어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세대별, 사회경제적지위별, 도시-농촌 간 비교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 연구의 목적은 뉴미디어 환경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물리적 접근성을 포함한 활용의 정도에서 비롯되는 개인 간 디지털 격차의 문제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인을 활용하여 이들 각각의 변인들 간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1차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나머지 변인들 간 영향력의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바, <연구문제 2>는 디지털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개인 간 디지털 격차는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사회의 주요 논쟁적 의제 중 하나가 세대 간, 도시-농촌 간 갈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문제에 포함시켰다.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세대 별 차이,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 노령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와 그들의 삶의 만족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 3>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세대별, 도시-농촌 간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V. 연구방법

1. 데이터 구성 및 표본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공하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진행되어온 KISDI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전국 약 4~5천 가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이용행태관련 패널 통계 자료이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4차년도 연구는 2013년 6~7월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인구통계 센서스에 기초하여 시·도 및 읍·면·동으로 2단계 층화 표본추출과 확률비례추출을 통해 전국 17개 도시, 4,381개 가구와 10,464명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전체 데이터 10,464개 샘플 중, 본 연구의 해당 변인에 대한 무응답자와 불성실 응답 표본 일부를 제외한 총 9,647개 샘플에 대해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샘플의 응답자 평균연령은 46.9세(SD=19.0)며, 티에이지(13~19세) 10.6%, 2030(20~39세) 24.7%, 4050(40~59세) 38%, 6070(60세 이상) 26.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녀 구성비율은 여성이 45.7%, 남성이 55.3%으로 남성이 조금 많았으며, 도시 거주자 비율이 86.5%로 군 단위 거주자(13.5%)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본 샘플의 학력은 초등(졸)이아가 18.2%, 중등(졸) 13.0%, 고등(졸) 36.4%, 대학(졸) 31.0%, 대학원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2. 변인 측정

2.1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

이 연구에서는 2013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원시 데이터를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간략히 범주화하거나, 신뢰도 분석을 통해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

1 자세한 조사 내용과 연혁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tat.kisdi.re.kr/MediaPanel/MediaPanel_Outline.aspx

과정을 거친 이후에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학력 등의 단순히 학력 변인만으로 SES를 측정하여 분석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학력 요인이 SES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SES는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이 두 개의 변인을 종합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최종학력(최종 출신학교)은 1~5까지 서열적으로 변환시키고, 소득 수준 또한, 100만원 단위로 1~8단계로 재분류 시킨 후, 이들 두 요인을 결합시켰다. 여기에 0~10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된 주관적 계급인식(소속 계층) 변인도 동일하게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21점 척도의 SES(M=11.9, SD=3.4) 변인을 생성시켜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SES 변인은 다시 각각의 SES 수치와 개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상(15~23점, 23.5%), 중(10~14점, 52%), 하(3~9점, 24.4%) 등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추가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개념적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는 크게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문제와 정보의 이용에 대한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바, 정보격차 혹은 정보 불평등으로 치환되어 논의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측면을 중심으로 계량화 하였다. 즉, 디지털 접근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수준을 통해 구분하였고, 디지털기기 활용 측면은 N-스크린(N-screen)의 이용 정도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N-스크린 이용은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로 구분되는 C-P-N-T(contents, platform, network, terminal)를 스마트 체계를 바탕으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습득/활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디지털 스마트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활용 여부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N-스크린 이용의 변화 추이가 2011년 15.9%에서 2012년 18.5%, 2013년 18.4%로 일반적인 개혁확산의 혁신 이용자 및 초기 수용자 비율에 근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27]. 즉 N스크린을 통해 방송프로그램/동영상/음악 및 음원/ 책, 신문, 잡지/

사진/문서 등을 이용한 경험 유무를 기초로 0~6점으로 구성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2G, 3G, PDA, 3G 스마트, LTE스마트로 구분하여 N스크린 이용 경험과 결합하여 1~9점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M=3.85, SD=1.8). 따라서 디지털 격차라는 변인의 실제 측정값이 의미하는 바는 그 값이 높을수록 디지털 격차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 확산의 가장 빠른 수용자 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3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여러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자존감, 자아 성취도 등과 삶의 만족도를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예를들면, 김희조(2011)는 정서적 웰빙을 핵심 개념으로 다루면서, 정서적 웰빙을 구성하는 차원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고독(loneliness)을 후자의 경우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전반적인 삶의 행복감(happiness)과 함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다[25].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 그리고 집단적 차원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변인을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즉,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각각의 차원에 따라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 집단적(혹은 집합적)차원에서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문항을 구성하였고,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각 차원으로 측정된 값들을 하나의 변인으로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아이겐 값=2.49, 크론바흐알파(Cronbach's α)=0.898, M=4.8, SD=1.0). 물론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나 성-연령 등의 요인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개인적 차원의 속성으로 통제변인으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모형

연구 설계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미디어 관련 변인이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

격차를 주요 변인으로 하여 단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3>과 관련하여 응답자 연령을 각각 10대(13~19세), 2030(20~39세), 4050(40~59세), 6070(60세 이상) 등 네 그룹으로 나누어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성, 연령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사회경제적지위가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사회경제적지위는 디지털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beta = 0.246, t = 28.16, p < .000$) 삶의 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beta = 0.345, t = 32.73, p < .000$).

표 1. SES가 디지털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β	t	R ²	
디지털 격차	1	성별	-.040	-4.714***	.370***
		연령	-.606	-72.029***	
	2	성별	.046	5.295***	
		연령	-.568	-69.422***	
	사회경제적 지위	.246	28.160***	.421***	
삶의 만족도	1	성별	-.029	-2.841**	.028***
		연령	-.162	-16.145***	
	2	성별	.092	8.964***	.125***
		연령	-.083	-8.415***	
		사회경제적 지위	.345	32.728***	
		성별	-.010	-.998	
		연령	-.054	-4.078***	
	3	사회경제적 지위	.241	27.698***	.025***
	디지털 격차	.119	9.049***		

* p<.05, ** p<.01, *** p<.000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각각의 모델에서 1.17~1.23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잔차 상관관계(독립성 여부) 역시 더빈-왓슨 값이 1.72, 1.77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가 삶의 만족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연구문제 2>) 성,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도 1.59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더빈-왓슨 값 역시 1.69로 잔차의 자기상관관계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격차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119, p < .000$), 디지털 활용이 높을수록(디지털 격차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표 1].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연령을 토타이지(13~19세), 2030(20~39세), 4050(40~59세), 6070(60세 이상) 등 4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격차는 이들 각 연령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1785.33, df = 3$). 2030 연령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M = 4.992, SD = 1.347$), 그 다음으로 10대 그룹($M = 4.846, SD = 1.525$), 4050 그룹($M = 3.814, SD = 1.564$), 6070 그룹($M = 2.04, SD = 1.03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기 검증 테스트(Tukey's b, a, b) 결과에서도 이들 각각의 집단들 모두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역시, 각 연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08.18, df = 3$). 구체적, 2030 그룹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M = 4.987, SD = 0.93$), 그 다음으로 10대 그룹($M = 4.961, SD = 1.017$), 4050 그룹($M = 4.891, SD = 0.93$), 6070 그룹($M = 4.535, SD = 0.9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연령 집단 간 변량분석

	연령	N	M	SD	F
디지털 격차	10대 ^a	980	4.846	1.525	df=3 1785.33***
	2030 ^d	2367	4.992	1.347	
	4050 ^c	3585	3.814	1.564	
	6070 ^a	1965	2.040	1.034	
	Total	8897	3.849	1.772	
삶의 만족도	10대 ^a	1025	4.961	1.017	df=3 108.18***
	2030 ^c	2384	4.987	.930	
	4050 ^b	3664	4.891	1.004	
	6070 ^a	2574	4.535	.992	
	Total	9647	4.827	1.000	

* p<.05, ** p<.01, *** p<.000

주: 후기 검증은 Tukey's B a, b, 유의수준 .05, a(b)(c)(d)임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도시-농촌간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두 항목 모두 도시가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디지털격차: $t=19.054$, $df=8826$, $p<.000$; 삶의 만족도: $t=2.565$, $df=9645$, $p<.000$)

도시와 농촌 간 비교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두 집단 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세 집단으로 나눈 후 다시 변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격차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의 수치가 농촌지역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F=220.88$, $df=2$, $p<.000$), 계층 간 차이는 상위 집단과 중위 집단 간 차이보다, 중위 집단과 하위집단 간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하위계층과 중위계층에서는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도시지역 거주자들보다 더 높게 나왔지만, 상위계층에서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농촌지역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역시 각 계층별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F=203.09$, $df=2$,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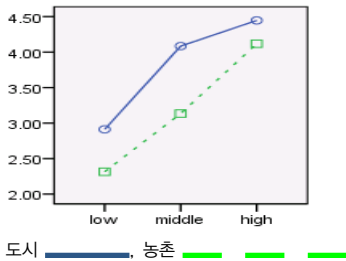


그림 1. SES에 따른 도시-농촌 간 디지털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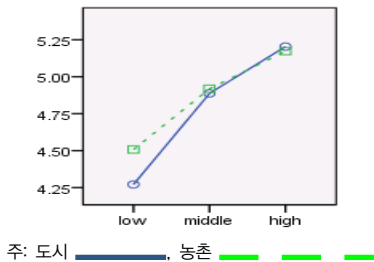


그림 2. SES에 따른 도시-농촌 간 삶의 만족도 차이

VI. 결론 및 토론

이 연구는 개인을 비롯한 세대별, 도시-농촌별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격차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분석과 변량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4차년도 전국규모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통해 얻어진 9,647개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디지털 격차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격차도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로모형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대별 변량 분석에 있어서는 다른 연령대 보다 20대와 30대가 디지털 격차측면에서 가장 높은 정보 습득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 역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도시와 농촌 간 디지털 격차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만 도시 거주자들이 농촌 거주자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을 뿐, 중간계층과 하위계층의 경우는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도시거주자들 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지닌다. 우선, 이 연구는 체계적이고 신뢰도 있는 미디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디지털 형평성의 문제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디지털 격차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오히려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외부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실천적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이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디지털 기기의 물리적 접근성을 뛰어넘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이용 및 콘텐츠 활용능력 등에 방점을 두고 디지털 격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전국 규모의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였지만, 이론적으로 검증된 변인 이외에 불충분하게 측정된 변인을 분석에 활용한 점이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라는 2차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한계로 인하여,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측정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가져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라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의 편의를 위해 삶의 만족도를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집합적 차원 등 세 부분으로 단순화시켜 측정된 변수를 활용한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외부 변인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단순히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기계적인 연령구분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연령 및 세대 구분을 통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E. M.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s (3rd ed)*, Free Press, 1983.
- [2] M. Taylor and D. C. Perry, "Diffusion of traditional and new media tactics in crisis communication," *Public Relations Review*, Vol.31, No.2, pp.209-217, 2005.
- [3] P. J. Tichenor, G. A. Donohue, and C. N. Olien,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4, No.2, pp.159-170, 1970.
- [4] van Dijk and K. Hacker, "The digital divide as a complex and dynamic phenomenon," *The Information Society*, Vol.19, No.4, pp.315-326, 2003.
- [5] P. Norris,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6] N. Zillien and E. Hargittai, "Digital Distinction: Status-Specific Types of Internet Usag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90, No.2, pp.274-291, 2009.
- [7] S. Livingston and F. Helsper, "Gradations in digital inclusion: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Vol.9, No.4, pp.671-696, 2007.
- [8] J. Y. Jung, J. L. Qiu, and Y. C. Kim, "Internet Connectedness and Inequality: Beyond the 'Divide,'" *Communication Research*, Vol.28, No.4, pp.507-525, 2001.
- [9] M. D. Chinn and R. W. Fairlie, "The determinants of the global digital divide: A cross-country analysis of computer and internet penetration," *Oxford Economic Papers*, Vol.59, No.1, pp.16-44, 2007.
- [10] G. Campbell and N. Kwak, "Mobile communication and civic life: Linking patterns of use to civic and political engagement," *J of Communication* Vol.60, pp.536-555, 2011.
- [11] 김은정, 이신영, "농촌 노인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사회적 지원과 우울성향 : 도시 노인과 의 비,"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pp.149-176, 2012.
- [12] 전종덕, 류소연, 한미아, 박종,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비교," *농촌의학·지역보건*, 제38권, 제3호, pp.182-194, 2013.
- [13] 박명숙, 송사리,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행경험과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3권, pp.155-183, 2010.
- [14] 정예리, 이숙희, "거주 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및 사회적 힘

의 비교: 도시와 농촌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63권, pp.79-108, 2010.

[15] 임형백, “한국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다문화사회의 차이와 정책 차별화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1호, pp.51-74, 2009.

[16] 안종철, 임왕규,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189-210, 2014.

[17] 김미숙, 신어진, “도시와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여가수준 비교연구,” 농촌의학·지역보건, 제34권, 제2호, pp.188-201, 2009.

[18] 심재권,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농촌과 도시지역의 산업구조변화 비교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2호, pp.125-146, 2008.

[19] D. F. Johnson, “Toward a Comprehensive Quality of Life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20, pp.473-496, 1988.

[20] G. E. Engle, “The Clinical Application of the Biopsychosocial Model,”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 pp.535-545, 1980.

[21] R.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Paperbacks, 2000.

[22] S. Cohen and T. A. Wills,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8, pp.310-357, 1985.

[23] D. M. boyd and Elliso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3, No.1, pp.210-230, 2008.

[24] N. Ellison, C. Steinfield, and C. Lampe,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2, No.4, pp.1143-1168, 2007.

[25] 금희조, “소셜 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사회자본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5호, pp.7-78, 2011.

[26] 임은의, 구분진, 임세현, “농촌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pp.567-590, 2014.

[27] 김윤화, “N스크린 이용행태 및 추이,” KISDI STAT Report, 2014-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저 자 소개

고 흥 석(Heungseok Koh)

정희원



- 2003년 8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현 미디어학부)(문학사)
- 2010년 12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Journalism (MA)
- 2017년 3월 현재 :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뉴미디어 콘텐츠 이용 및 정책, 영상콘텐츠 저작권